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이어가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 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현재 14개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국 외에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MSP 회원국은 「MSP 포럼」 참여국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하였다.

또한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MSP 시범사업 (‘24.2월 기준 총 23개이며, 세부 분야, 자원, 지역별 중복 있음)

- ① 벨류체인으로는, 상류(upstream) 추출 분야 16개, 중류(midstream) 광물 제련 분야 9개, 재활용 및 복구 분야 3개, ② 광종으로는, 리튬 1개, 흑연 6개, 니켈 2개, 코발트 3개, 망간 1개, 구리 2개, 희토류 9개, ③ 지역적으로는, 미주 6개, 아프리카 13개, 유럽 4개, 아시아태평양 2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MSP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 중남미 자원보유국 등도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광물 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광업인 축제인 「캐나다 PDAC 광업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되었다.

아울러 외교부 강인선 2차관은 MSP 수석대표회의(3.3)와 연계하여 3.4.(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범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3.4.(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69)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044-203-5259)
	외교부 에너지자원외교과	책임자	과 장	박세아 (02-2100-8192)
		담당자	사무관	엄승표 (02-2100-8196)

